

오카리나로 표현한 전생·현생·내세

인터뷰

유승엽 대중음악가
오카리나 명상음반 '다시만나요' 발표



오카리나 연주자 유승엽씨는 오카리나는 인류가 다듬어가야 할 마지막 악기라는 생각에서 20년 넘게 오카리나 연주를 해 오고 있다.

1980년대 초 '나보다 더 나를 사랑하는 남이시여'라는 불음가요로 인기를 모았던 불교음악가 유승엽 씨가 오카리나 명상음반 '다시만나요'를 발표했다. '다시만나요'는 기타와 오카리나 두 악기만으로 전생·현생·내세의 3부를 음악으로 표현한 판타지 한 느낌이 충분한 앨범이다.

오랜 세월 휴으로 오카리나를 고집스럽게 만들고 연주해온 유승엽 씨는 오카리나만이 갖는 독특한 영적소리의 세계를 표현하고자 했다.

이탈리아어로 '작은 거위'를 뜻하는 오카리나(Ocarina)는 누구나 쉽게 소리를 낼 수 있는 도자기 악기다. 음색이 우아하고 맑고 깊은 소리를 내기 때문에 널리 애용되고 있다.

유승엽 연주자는 1975년 <슬픈 노래는 싫어요>를 작사·작곡해 가수로 데뷔했으며 1980년까지 이은하의 <밤차> <겨울잠미>, 윤승희의 <제비처럼>, 진미령의 <하얀 민들레>, 심수봉의 <당신은 누구시길래>, 손현주의 <보고 있어도 보고 싶은 그대> 등을 작사 작곡한 대중음악가였다. 그러다 1980년대 초 스님들의 시를 모아 작곡 의뢰 요청이 들어오면서 김연숙이 부른 '나보다 더 나를 사랑하는 남이시여'를 작곡해 불음가요라는 장르를 탄생시켰다.

이후 마당세실극장 극장장을 맡게 된 유승엽 연주자는 김상철 작가와 함께 만해 스님의 일대기를 그린 뮤지컬 '님의 침묵'을 작곡해 1985년 관객들에게 선보였다. 유승엽 씨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1987년 '우리말 옮김 반야심경', '불음' 등 다수의 음반을 출판하면서 왕성한 불교음악활동을 펼쳤다.

그러다 1992년 캐나다로 이민한 유 씨는 인생의 중요한 전환기를 맞는다. 바로 오카리나를 알게 된 것. "캐나다에서 우연히 접하게 된 오카리나 소리에 반했습니다. 오카리나야말로 인류가 다듬어 가야 할 마지막 악기라고 생각하고 제 영혼을 의탁하지 벌써 20년이 돼갑니다. 그야말로 나무 한 그루 건드리지 않고 흙 한 줌으로 신비한 소리를 내는 이 악기가 너무 신기했습니다."

그렇게 오카리나 음색에 흠뻑 빠진 유 씨는 1997년 국내 최초의 오카리나 음반인 '해초'를 발매했다. 유승엽 씨는 해초 스님 당시의 원시적인 소리를 표현하기 위해 오카리나를 연주했다. 이후 유 씨는 1999년 2월 문화관광부 지정 '해초의 달'을 맞아 현대불교신

문과 진각종이 함께 국립극장에서 개최한 국악교성곡 '해초'의 공연을 기획해 큰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현재 한국오카리나아카데미 원장을 맡고 있는 그는 오카리나의 대중화를 위해 힘을 쏟고 있다. 유승엽 연주자는 이번 앨범 '다시만나요'에 대해 "과연 전생이 있고 내세가 있을까? 만약 있다면..."이라는 화두로 시작해 이 음반을 기획했다. 만나고 헤어지는 우리들의 인생을 담담하게 오카리나 선율에 표현하고자 했다"며 "많은 명상 음악들이 있지만 우리 민족만이 갖는 독특하고 고유한 음들을 모아 서양음악의 코드와 접목을 시도했다"고 설명했다.

이내는 기자 oasis1983@hyunbul.com

지철 스님의 도상(圖像)을 통해 본 상징과 은유

중생의 업이 눈앞에 펼쳐지다

내금강 면경대도 (內金剛 面鏡臺圖)

한반도에서 가장 아름답다는 금강산은 그 명칭이 아홉 가지는 넘는다. 봄에 부르는 이름인 금강산(金剛山), 푸른 녹음(綠陰)이 짙어 신선이 사는 산과 같아 부르는 봉래산(蓬萊山), 붉고 노란 단풍이 들어 가을의 아름다움을 누리는 풍악산(楓嶽山), 겨울이 되어 바위와 돌이 골격을 드러내다. 개골산(皆骨山) 등이 대표적인 이름들이다.



소정 변관식의 '내금강 면경대도'의 일부분

내금강 명경대도 세 가지의 이름을 지니고 있다. 앞뒤가 똑같이 반듯하고 판판하다고 해서 면경대(面鏡臺)라 하기도 하고, 선악을 밝혀 분명히 한다고 하여, 명경대(明鏡臺)라 하기도 하고, 지옥의 열라대왕이 지니고 있으면서 죄인들을 판단하는 일을 하는 업경대(業鏡臺)라고도 한다. <지장보살심인연시왕경(地藏菩薩心因緣十王經)>에는 "사방팔방마다 업경을 달아두어 일체 중생의 업이 마치 바로 눈앞에 펼쳐지는 것 같이 볼 수 있다"고 하였다.

전설에 의하면, 저승사자가 안창이라는 곳의 이름난 부자를 불러 죄를 물었다. 그 부자는 자신이 평생 좋은 일만 했다고 했으나 업경에 비춰 보니, 거지나 가난한 이들을 때리고, 키우는 짐승들을 농번기 때에는 일시키고, 농한기에는 먹이를 주지 않고 굶어 죽이는 악행을 일삼는 자였다.

그에게 중벌을 내린 열라대왕은 어찌하면, 인간들이 죄를 짓지 않고 경각심을 가질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조선의 명산 금강산에 업경대를 세우고, 장안사 남쪽에 냇물을 만들고 이승서 저승으로 가는 곳이라 하여 황천강이라 하였고, 그 냇물 위에 앞뒤가 모양이 같은 거울(면경)모양의 큰바위를 세웠으니 그 바위가 명경대라는 이야기이다.

특히, 금강산 명경대 앞에는 열라대왕봉과 소머리를 한 옥졸을 상징하는 우두봉, 죄인봉, 판관봉 등이 줄줄이 늘어서 그 곳에 가면 누구나 마음이 엄숙해진다고 한다. 때문에 명경대를 다녀오면 황천길이 밝아져 극락에 간다고 한다고 해서 많은 사람들이 명경대 관광을 즐겼다고 전한다.

단원 김홍도가 내금강에서 제일 먼저 그린 그림이 명경대이다. 심사정과 겸재 정선도 명경대를 그렸다고 전하나, 소정 변관식이 명경대 그림은 실로 생동감이 있다. 이 그림을 보는 이마다 금생이 지나면, 극락왕생하시길 본다.



동화사 성보박물관장

조선 선조 당시 성주목사(星州牧使)를 역임했던 경암(敬菴) 노경임(盧景任)의 <유금강산기(遊金剛山記)>에 의하면, 금강산은 열반산(涅槃山), 지달산, 중향산(衆香山) 등으로도 불려, 단연 불교적인 이름들이 으뜸이다. 금강산 계곡마다 108개의 사찰과 암자들이 성황을 이뤘다고 전한다. 금강산 이름조차 <금강반야바라밀경>의 첫 두자를 따온 것으로 봐도 무방하다. 실로 금강산은 곳곳마다 불교의 성지가 아닌 곳이 없다.

108도량 있어 곳곳마다 불교성지

소동파 '금강산 보고 싶다' 며 칭송

1000개 봉우리 중 명경대는

김홍도가 내금강서 제일 먼저 그려

북송대의 시인으로 당송(唐宋)을 통틀어 최고의 문사(文士)인 동파(東坡) 소식(蘇軾)은 "고려국에 태어나 금강산을 한 번 보고 싶다(願生高麗國一見金剛山)"고 했으니, 이는 허세와 교만이 강한 중국인들조차 금강산의 아름다움과 신비함을 인정하고 있다.

또한 <세종실록지리지(世宗實錄地理志)>에는 "이 산은 천 개의 봉우리가 눈처럼 서서 높고 절묘함이 으뜸이며, 또한 불사(佛書)에 담무갈보살(曇無竭菩薩)이 거하던 곳이란 이야기가 있어서, 사람들이 인간정토(人間淨土)라 이른다"고 전한다.

담무갈보살은 법을 일으키는 보살로 범기보살(法起菩薩)이라고도 부른다. <금강경>을 설하며, 1만2000명의 권속과 함께 지내고, 그가 머무는 곳이 바다에 떠 있다하여 금강산을 지달산이라 부르기도 하고, 원효 스님의 <화엄경소(華嚴經疏)>에 의하면, 범기보살의 주처를 중향산(衆香城)이라고 부르기에 중향산이라 하며, 범기보살의 덕화가 워낙 커서 스님들이 금강산에 살기만해도 수행을 하지 않아도 깨칠 수 있기에 열반산이라 한다.

목인박물관 '용용 죽겠지'展

韓·中 등 나라별 용 목조각 전시

국내·외 전통목조각상을 전문으로 전시하는 목인박물관(관장 김의광)이 임진년 새해를 맞아 3월 4일까지 '용용 죽겠지' 특별전을 개최한다. 목인박물관은 '명량한 용 목인들의 이야기'를 주제로 다채로운 용 관련 유물들을 전시한다.

용은 상상 속의 동물로 여러 동물의 장점을 모아 만들어진 상서로운 동물이다. 우리 민족은 예부터 용의 모습을 민족의 표부이자 희망을 근원으로 삼아왔다. 또 왕권의 상징과 등용의 의미로 보기도 하고, 출세와 성공의 상징으로 삼기도 했다.

전시는 한국·중국 등 각 나라별 용의 모습을 비교해 볼 수 있다. 무신도·민화 등에 등장하는 용들의 모습도 살펴볼 수 있다. 또한 용이 새겨진 목판화를 직접 찍어보고, 용에게 소원을 적어 달 수 있는 체험 공간도 마련됐다.



용은 예부터 희망의 근원으로 삼아왔다.

이번 전시는 소박하면서도 친근한 목조각상을 통해 용의 다양한 표정과 모습, 상징적 의미를 살펴보고, 희망을 잃지 않고 어려운 시기를 헤쳐 나갔던 조상들의 지혜를 다시 한 번 엿볼 수 있는 기회이다. (02)722-5066 이은정 기자

민속박물관대학 개강

한국사·종교·예술 등 강좌 진행

국립민속박물관(관장 천진기)과 국립민속박물관회(회장 김의정)는 전통민속문화를 쉽게 알리기 위해 3월 5일 민속박물관대학을 개강한다.

강좌는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초정 때, 우리의 민속 및 한국사, 종교, 예술 등 다양한 주제를 통한 이론교육과 현장실습교육이 병행된다.

국립민속박물관은 "이번 강좌를 통해 일반인들에게 문화전반에 대한 다양한 관점과 이해의 폭을 넓혀주고, 동시에 우리의 역사를 재조명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교육은 국립민속박물관 대강당에서 12월 24일까지 매주 월요일마다 실시되며, 수강료는 30만 원이다. (02)3704-3114

이은정 기자 soe84@hyunbul.com

[문화관광부 허가 제2010-9호]

사단법인 대원불교 조계종 종도모집



석가여래부촉법 제 77세 청봉 석정산 대승사



◆ 입중 안내 ◆

1) 입중 구비서류

- 사찰 및 승려 등록 신청서 1통
- 주민등록증 앞, 뒤 사본 1통
- 반명함판 사진 3매
- 법당사진 안 밖 각 1매(사찰등록 하실분에 한함)
- 승려증 발급 하실 분은 필히 타종단 수계합 및 승려증 사본 첨부
- 도점은 본 종단에서 수계를 받을 분에 한하여 발급합니다.
- 총본산 : 경남 양산시 주전동 656번지 불광사 ☎ 010-3565-2462, 070-4187-4747 ☎ 055)364-4747 / FAX 055)364-4849 ☎ 010-2840-8207

2) 입중 후 발급 증명서

- 승려증(법사증, 포교사)
- 사찰 등록증
- 주지 임명장
- 추대 및 위촉장(간부스님에 한함)
- * 범용법제 교육대학 9기생 모집
- * 계좌번호 : 농협 351-0227-1551-63 / 예금주 : (사) 대원불교 조계종

종 정 청 봉 석정산

(종정실 사서실장 : 박연화연) (사무총장 : 석능각)

원로회

고문 석홍섭
원로회장 석무공
부회장 석무겸 부회장 석만월

승정원

승정원장 석원정

중앙총회

총회장 석덕오
부원장 석철오

호법원

호법원장 석원명

감찰원

감찰원장 석현중

사정원

사정원장 석법경
부원장 석정공

총무원

총무원장 석해오
총무부장 석운오
재무부장 석법담
정보부장 석보각
행사부장 석지혜

부원장

부원장 석용암
교무부장 석성오
사회부장 석해주
동원부장 석법원
의전부장 석근홍

교구총무원

구미총무원장 석해광
전북총무원장 석철산
마산총무원장 석법경
전남총무원장 석법진
진주총무원장 석덕오

비구니원

원장 석정명
부원장 석광명
총무부장 석도현
교무부장 석승룡
문화부장 석법륜
포교부장 석해안
감사부장 석수진

중앙위원회

전국신도회회장 노세주
중앙행정위원장 차정호
중앙운영위원장 손연자
중앙무수위원장 엄대일
중앙정책위원장 박만석
중앙문화위원장 박무근
중앙기획위원장 조길환

인터넷 주소 : www.dwbk.net

법패, 육효, 학인모집

(매주 토요일마다) 강의함.
문의 전화 : (055)364-4747

직지인심 견성성불을 체득하고 대승사상 지장보살행을 용으로 하며 상구보리 하화중생을 종지로 삼고 있는 (사)대원불교 조계종 총본산 불광사에서는 부처님의 불법을 함께 펼쳐 나갈 사찰 및 종도님을 모집한다.

만약 본 총무원을 사칭하며 금품, 또는 물품 판매를 강요하는 자가 있으면 즉시 총무원에 신고하시길 바랍니다.